

[심층보도] >> 4면
우리학교는 어디로

[기획] >> 6면
누구를 위한 학식인가

[기획] >> 7면
주한일본대사관 앞엔 소녀가 있다

[인물] >> 12면
1세대 헤드헌터를 만나다



지난 9일 오전 9시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교 총장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엔 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을 비롯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교 · 상하이외국어대학교 △일본 동경 · 교토외국어대학교 △몽골 인문대학교 △베트남 국립하노이외

국어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총장과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국어 교육 진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각 나라별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3면에 계속

청년 실업 해결 위해 우리학교, 서울시와 손잡고 나서

지난 2월 29일 성신여대 수경캠퍼스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협약이 맺어졌다. 이날 협약엔 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을 비롯해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 구기현 상명대학교 총장,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석했다.

위 대학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도입해 각 학교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기관은 학교 내 고학년 중심의 취업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저학년 때부터 진로상담, 취업 정보 지원 등 심층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돕는다. 우리학교는 지난해부터 연간 5억

원을 지원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각 대학 총장과 서울시는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그 후 '서울시와 5개 대학 간 서밋 회의' 및 협약식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 창업 공간 마련, 대학생 인턴십 등 현실적인 실업 해소 방안들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우수한 중견 ·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수요를 파악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에 힘쓰는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취업 정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기로 했다.

이에 김인철 총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청년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1000여 개의 서울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찾으면서 시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바로 잡습니다>

지난 2일 발행된
본지 992호 6면
'달은 듯 덮지 않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7시 파견학생제도'
기사를 이번 호 6면에서
올바르게 정정합니다.

열정과 패기로 뭉친 신입기자를 찾습니다!

• 외대학보사 93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6년 3월 2일(수)~4월 1일(금)
모집대상 : 양 캠퍼스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4월 1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4월 2일(토)
합격자 발표일 : 4월 3일(일)

•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서울캠퍼스 국제학사 401호 02-2173-2504
▶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 외대학보 이메일 hufspres@hanmail.net

문의사항 연락처 : 박은혜 편집장 010-9179-9970

우리학교, 코어 사업 추가 신청 예정

정부서 추진하는 코어 사업 참여한 63개 대학 중 16개 대학 최종 1차 선발, 우리학교는 탈락

지난 17일, 우리학교가 코어(core,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심사 결과 최종 탈락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코어 사업은 사회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인문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부는 대학 전체와 인문대학의 기본역량 및 실적을 토대로 향후 인문학 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1단계 심사에서 통과된 우리학교는 '글로벌 지역학' 발전 모델로 2단계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에 도전했다. '글로벌 지역학'은 어문 계열 학문에 지역학을 접목시켜 학문의 실용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당초 외국어 교육을 특색으로 하는 우리학교는 최종 선정될 것이라 예상과는 다르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편 코어 사업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서양어대 △영어대 △일본어대 △중국어대를 제외시켜 해당 학과 교수들의 공분을 샀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우리학교가 코어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지원 사업은 전체 단과 대학(이하 단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번 코어 사업은 학

교 측의 공표 없이 일부 단과에서만 추진돼 문제가 된 것이다. 코어 사업에서 제외된 4개 단과는 학교 측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학'에서 4개 단과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은 "처음부터 '전략 지역 언어'에 해당하는 △국제지역대 △동유럽대 △동양어대만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단과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구 일본어대 대학장은 "코어 사업에서 이미 글로벌 지역학을 가르치고 있는 일본어대와 중국어대를 제외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전략 지역 언어학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2월 말에 의회에서 발의된 '특수 지역 언어 진흥법'의 수혜를 받는 것도 코어 사업에 참여한 3개 단과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를 받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구 대학장은 "학교가 코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특수 지역 언어 진흥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모든

단과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16개로 수도권 대학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가톨릭대 △한양대이며, 지방 대학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북대를 포함해 △부산외대 △동아대 △부경대 △계명대 △가톨릭관동대 총 9개 대학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참여 학과와 교원 수, 학생 수 그리고 사업 계획과 규모에 따라 최대 37억에서 12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25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근거로 16개 대학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어 사업에는 수도권 대학 17개, 지방 대학 46개가 지원했으며 1단계 서면 평가에서 13개 대학이 탈락하고 2단계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에서 33개 대학이 탈락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과 최초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학들도 이번 달 중 있을 추가 공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김영환 기자 92youngx@hufs.ac.kr

역사가 깃든 구본관, 정초석에 잠들다



▲ 정초석 앞에서 김인철 총장, 이남주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2시 구본관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앞 미네르바 스퀘어에 공간을 조성해 정초석을 세웠다. 이를 기념해 역사관에서 개최된 '구본관 정초석 제막식'에는 이남주 이사장, 김인철 총장, 최종찬 어에 공간을 조성해 정초석을 세웠다. 이를 기념해 서울캠퍼스 부총장, 이보화 글로벌캠퍼스 부

총장 및 각 부 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금의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역사관(구본관)은 1957년 9월 본관으로 준공됐던 건물이다. 1959년 1차 중축 공사 후 구본관은 강의실, 교수실, 행정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춘 건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구본관은 '외대 제 1호 건물'이라 불리며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졌으나 지난 2009년 철거됐다. 남은 공간은 2011년 미네르바 콤플렉스가 조성될 때 함께 리모델링돼 우리학교 역사를 그대로 보존·전시하기 위한 역사관으로 탈바꿈했다.

조용성 역사관 관계자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인 만큼 옛 본관에 정초석을 세우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우리학교 역사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진희 기자 92clia@hufs.ac.kr

도장 찍어야 게시판에 붙일 수 있다

개강을 맞아 활기를 띤 서울캠퍼스의 게시판에는 각종 전단지과 포스터들이 뽀뽀 붙여져 있다. 신입생들을 동아리에 영입하기 위한 포스터, 전단지, 각종 학원의 광고지들로 게시판의 빈 틈을 찾을 수 없다.

글로벌캠퍼스의 게시판 역시 포스터들이 붙어 있지만 서울캠퍼스만큼 뽀뽀한 수준은 아니다. 글로벌캠퍼스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들에는 저마다 도장이 찍혀있다. 이 도장은 건물별 단과 대학 학생회나 총학생회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 도장을 받아야만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익명 게시판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도장을 찍는 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장을 받는 이유는 상업적 전단지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서울캠퍼스도 게시판에 외부게시물을 붙이려면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관리하진 않고 있다. 서울캠퍼스도 게시물에 전부 도장을 찍는 것을 고려했었지만 관리할 게시판이 너무 많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에 많은 양의 포스터가 붙여지는데 정기적으로 떼지 않고 게시물이 너무 많아 지면 경비 근무자들이 처리하고 있다.

김동규(서양어·노어 12)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까지 도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포스터보다 외부게시물이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민(영어·영어 14) 양은 "학과 사무실 게시판을 제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 게시판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이나 인턴모집 등 광고포스터에서 얻는 정보도 많다"고 도장 제도에 반대했다.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도장을 받지 않으면 게시판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도장이 찍힌 포스터는 떼지 않고 상업적 전단지가 허가 없이 붙여져 있으면 수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캠퍼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장의 유무를 확인해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케이무브로 해외취업 노리자!

우리학교 국비지원 K-MOVE 운영 미국 취업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학교는 이번 해 국비지원 케이무브(K-MOVE) 스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9일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지난 17일 백년관에서 같은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개최된 강연에서 이인석 케이무브 미국팀장은 케이무브 스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해외취업처에 대한 정보, 등록 절차 등을 설명했다.

케이무브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원활한 해외취업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미국 SNS소셜마케팅 및 IT과정은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IT와 온라인 마케팅 분야가 취약한 미국 취업 시장에 틈새공략을 펼치는 것이다. 교육

과정은 서울캠퍼스에서 약 6개월 간 시행되며 직무 및 어학교육을 이수한 다음 미국으로 취업하는 과정을 교육받는다.

프로그램 과목엔 SNS 온라인마케팅, GTQ 자격증과정(포토, 일러스트, HTML, CSS 등), 비즈니스영어, 인터뷰영어, 미국현지적응교육이 있다. 우리학교 4학년 재학생 이상 기 졸업생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미국 내 우수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인석 팀장은 "지원자의 전공과 이종 및 부전공에 관련된 업무로 연결해 주려 노력한다"며 "지원자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케이무브 누리집을 방문하면 해외진출 성공수기를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장학금으로 전달받는 동문의 마음

지난 11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내외를 비롯해 이준석 주식회사 현마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리학교에 서는 최종찬 부총장, 김유경 대외부총장, 김태성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신정아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장학생들의 해당학과 학과장과 학부모들이 자리를 빛냈다.

서울캠퍼스는 정혜민(사회·정의 12) 양, 현지윤(상경·국통 12) 양, 장민호(상경·경제 11) 군, 서규원(서양어·프랑스어 13) 양, 박혁(사회 12) 군, 이예슬(영어·영어 14) 양, 팜티미 프영(사회·미디어 15) 양, 김동혁(상

경·국통 13) 군으로 8명의 학생이, 글로벌캠퍼스는 최은비(통번역·일본어 14) 양, 신은호(통번역·중국어 12) 군, 유현나(인문·지식 15) 양으로 3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교수회관 귀빈식당에서 장학생들은 이성희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재단 및 학교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현마 장학생 수여식은 이성희 현마산업 회장이 2009년에 30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시작했다. 이성희 회장은 197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무역회사와 제약회사를 이끌었던 기업인이다. 이 회장의 장학금 쾌척으로 우리학교는 입학생들 중 장학생을 선발해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을 마주할 때 마다 그들의 열정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존장학생 및 신규 장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찬 부총장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재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전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아시아 외국어 대학의 미래를 위해 ...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교 총장 포럼 개최돼



▲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이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교 총장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9시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교 총장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선 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은

비롯해 △부산외국어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교 · 상하이외국어대학교 △일본 동경 · 교토외국어대학교 △몽골 인문대학교 △베트남 국립하노이외국어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총장과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반 종합대학들이 국제화 방안으로 외국어 교육을 선택하면서 외국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종합대학과 차별점을 두는 것이 포럼의 개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우수 외국어 대학들과 노하우를 공유한 우리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외국어 교육 진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각 나라별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각 대학 총장들은 아시아 외국어 대학들의 상호

교류 방안을 공유했다. 우리학교는 국제무대에서 외국어대 발전 방안으로 연 300명의 재학생을 지역 전문가로 만드는 것을 꼽았다. 구마카이 도시키 교토 외국어대 부총장은 "각 나라 학생들이 세계적 이슈를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양 상하이 외국어대 부총장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외국어대 간 실질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이 끝난 후 우리학교는 10개의 아시아 외국어 대학교와 '아시아 지역 외국어 대학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로써 외국어 대학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어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인철 총장은 "더 이상 외국어 대학 간 협력이 선택적 부분이 아닌 시대"라며 "외국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학술 · 교육 등 실질적인 교류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히 아시아 대학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대학의 언어 교육 정책 등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아시아 내 외국어 교육 발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이동학생회 통해 소통의 장을 연 '함께등대'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함께등대'는 지난 10일을 제외한 7일부터 11일까지 본관 앞에서 이동학생회를 열었다. 총학은 7일에서 9일엔 우리학교 탁상달력과 롯데월드 특별우대권을, 11일엔 자체 제작한 다이어리를 배부했다. 이동학생회가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었다. 총학은 학생들이 총장과 총학에 바라는 점을 전지에 자유롭게 작성하는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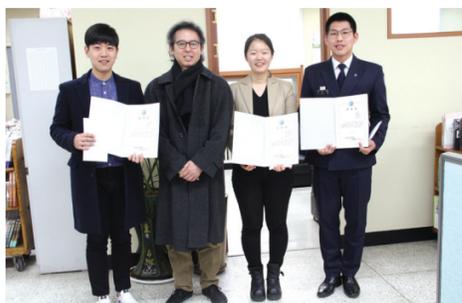
내용 중 대다수는 '학교 와이파이 개선'과 '도서관 환경 개선'이었다. 총학은 "작성된 전지를 수정이나 가공 없이 총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권진희(영어 · EICC 16) 군은 "이동학생회를 통해 학교와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취지의 행사를 자주 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상아(사범 · 영교 16) 양과 김민정(사범 · 영교 16) 양은 "이동학생회가 우리학교 분위기를 더

욱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다"며 "학교를 이끌고 있는 총학과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이동학생회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심도있는 홍보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총학은 이동학생회에서 지난 2월 19일 선출된 김종철 이사장에 관한 성명을 내걸고 입장을 알렸다. 총학은 김종철 이사장이 우리학교 설립자 및 구

재단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철 이사장이 이사직에 있을 당시 재단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총학은 이사장실 앞에 관련 성명서를 부착했으며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사회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기자 92youngx@hufs.ac.kr

읽는 것이 힘이다 서울캠퍼스 다독상 시상식 열려



▲서울캠퍼스 다독상 수상자들이 전기순 도서관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도서관장에서 다독상, 토익(TOEIC) · 토플(TOEFL) 모의시험 성적우수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체 12명의 수상자 중 김윤희(사회 · 정외 11) 양, 김정원(국제 12) 군, 김진(사회 · 행정 10) 군이 참석해 전기순 도서관장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 받았다. 시상 후 전기순 도서관장과 수상자들은 독서를 주제로 담소를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전기순 도서관장은 "수상자들의 독서하는 태도를 높이 산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수상자 독서 권수가 매우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윤희 양은 "시상을 통해 더욱 독서에 애정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취업, 자격증 시험 준비 등으로 각자 바쁘기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독서를 통해 색다른 삶을 살아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 역시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것"이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진 군 역시 "생각지도 못한 수상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계기로 독서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다독상 수상자

구분	성명	대학	학과
우수	김윤희	사회	정의
장려	양성미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 CIS
	김중환	사회	정의
	김연수	상경	경제
	이진선	교육대학원	종교
	김정원	국제	
	황주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김진	사회	행정

토익 · 토플 모의시험 성적우수상 수상자

구분	성명	대학	학과
우수	정동영	서양어	노어
장려	이진욱	국제	
	이예지	영어	영어
	정형진	상경	국통

환영합니다, 트란실바니아 대학 부총장님!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대학 부총장특강 열어 루마니아어과, 전통 춤 공연으로 환영



▲트란실바니아 대학 부총장들과 김인철 총장, 박정오 루마니아어과 학과장이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캠퍼스 어문관에서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Transilvania) 대학교 부총장 초청 특강이 개최됐다. 특강은 한 · 루마니아 문화 · 예술협회와 루 · 한 국 상공회의소에서 후원했다. 3명의 부총장, 미하엘라 게오르게(Mihaela Gheorghe) 교육부처, 시모나 라케(Simona Lache) 국제교류부처 그리고 카르멘 부제아(Carmen Buzea) 연구부처 부총장은 루마니아 문화, 언

어, 역사에 대해 강의했다.

미하엘라 게오르게 부총장은 "루마니아어는 라틴어와 관련이 있어 배우기 쉽지 않다"며 루마니아어과 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덧붙여 "루마니아어를 배우면 다른 라틴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시모나 라케 부총장은 "우리는 한국학생들을 루마니아 학생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때문에 여러 유학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카르멘 부제아 부총장은 루마니아의 특징을 설명했다.

루마니아 전통 춤 학회인 토프(Tof)와 노고봉은 부총장들을 환영하며 공연을 펼쳤다. 카르멘 부제아 부총장은 루마니아어과 학회의 공연을 관람한 뒤 "이렇게 환영을 받아 영광이며 루마니아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특강에 참여한 김태연(동유럽 · 루마니아 11) 군은 "우리학교와 루마니아의 교류가 활발해져 루마니아어과 학생들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커피 한 잔에 책 한 권 어때요?

17일 글로벌캠퍼스 후생관에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북카페 오픈식이 열렸다. 이날 오픈식에는 이보화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생협 정진성 사무장, 전용갑 행정지원처 처장, 이은석 생협 이사장, 정준영 F&B 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은석 생협 이사장은 "생협이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해왔는데 북카페 역시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학습과 동시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며 개업을 축하했다. 정준영 F&B 주식회사 대표는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질 좋은 커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후생관 3층, 현재의 북카페 자리는 빈 공간이었다. 생협은 지난해 12월 빈 공간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0% 이상의 학생들이 '카페 도입'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생협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책과 인터넷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북카페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카페는 카페와 스터디룸으로 나뉘

다. 카페 역할뿐 아니라 복도에 차단막을 설치해 소음에 침해받지 않는 스터디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정진성 사무국장은 "조합을 맡고있는 운영자로서 후생관이 본래의 기능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복지 부분이 미흡해 후생관이라는 공간을 재밌고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21일부터 25일은 5000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 프리즐 빵을 제공하고 21일부터 도서기증캠페인도 진행해 기증자이름을 넣어 서가를 만들 계획이다. 맘스터치와 그라치에를 연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에 있다. 후생관 3층 국제학생회 공간을 중고장터방으로 작업할 예정이다.

정진성 사무국장은 "북카페의 책 도난이 가장 큰 문제지만 별도의 도난 방지시스템 없이 학생들의 양심을 믿을 것"이라며 "와이파이 사용에 대해서도 학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미래위원장에게 한국외대의 미래를 묻다

2014년 총장직속 기구로 설립된 미래위원회는 가장 앞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사회 각지의 외부인사 위원 5명, 내부인사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는 오늘도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학교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원호 미래위원장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실장, 기초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을 지낸 후 2007년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누구보다도 우리학교 내부인과 외부인의 시각을 두루 갖춘 위원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먼저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크게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PC시대'다. 이 시대에서 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인 1PC가 보편화되고 물리적 자산과 노동, 자본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디지털화, 전산화가 이뤄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터넷시대'다. 이때는 '디지털'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는데,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던 시대다. 초고속 인터넷이 상용화 되고 많은 정보와 지식이 온라인화, 정보화 되던 시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모바일시대'다. 이 시대는 '인터넷시대'에서 현재의 '초연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이때는 스마트폰과 앱서비스, SNS가 핵심 서비스 분야며, 스마트폰을 통해 손안의 PC가 가능해진 시대다.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이 모바일화됐다.

현재는 앞서 말한 '초연결시대'다. 이 시대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미래라 할 수 있다. 지금 대체로 손꼽히고 있는 빅데이터와 사물네트워크(M2M)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상황을 인식하며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며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경제의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생각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다. 이 시대에서 구시대 산업과 직종은 소멸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우리학교의 역사를 크게 30년 단위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수·출입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던 시기였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무역을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국외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외화사용에 대한 규제도 엄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학교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잘 읽어내고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는 많은 나라들의 문호가 열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던 시기다. 국외를 드나드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많은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독점하고 있던 국제경쟁 인

력 교육에서 우리학교의 유일함을 잃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2010년대부터 2030년대를 설명하기 위해선 밀레니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먼저 알아야 한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국제연합(UN)에서 지난 2000년 채택한 의제로 세계의 빈곤자수를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목표를 정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난 2015년 국제연합(UN)에 참여한 193개국 전 세계가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하고 15년간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세계는 점점 더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따라 우리학교도 국제협력에 위한 인재를 키우고 잃어버린 희소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일보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 3,704만 명에서 2050년 2,535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1.03%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생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초연결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돼 구조적 실업이 늘며, 졸업생의 취업률은 더욱 저조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선 안 된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해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2020년까지 전 세계의 인터넷 기기는 500억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시대에 맞춰 우리학교는 스타 교수를 중심으로 한 공개강의(OCW, Open CourseWare)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강의를 통해 전 세계의 일반인들에게 온라인 공개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계 온라인 교육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우리학교에서도 공개강의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실시해 전 세계의 학생들이 우리학교 강의를 통해 자유롭게 학점을 교류하고 우리학교 학생들 또한 세계 대학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함으로써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온라인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캠퍼스'가 활성화되면 해외에 캠퍼스를 짓지 않아도 외국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누구나 쉽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현상은 인류의 보급으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캠퍼스'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해 글로벌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세계 45개 언어기반을 갖춘 우리학교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독자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학교의 변화를 위해 미래위원회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글로벌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어공용캠퍼스를 구축하고 영어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 유치, 온라인 강의를 통한 스마트 해외 캠퍼스 운영, 교육수요분석을 통한 새로운 개념 창출, 융·복합 교육 활성화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융·복합'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했다.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종이 강한 것이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도 단순히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 세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영환 기자 92youngx@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6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비고
특별전형	2016.4.4(월)-4.8(금)	4.30(토) 10:00	5.19(목) 14:00	5.23(월)-5.27(금)	
일반전형	2016.5.09(월)-5.13(금)	5.28(토) 10:00	6.16(목) 14:00	6.20(월)-6.24(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시장 및 고시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 교류 가능

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라.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사.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 그 역사적 배경



송준서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 서먹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주러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한국 정부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의에 대한 러시아 측의 불만을 전달했는가 하면, 이번 달 초 한국 정부가 대북한 제재의 목적으로, 러시아와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북한과의 나진과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 중단 결정을 내리자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런 경계심과 실망감은 어디서 기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소위 러시아의 '동방정책' 또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으로 불리는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특히 당시까지만 해도 해마다 경이로운 성장률을 갱신하던 중국 경제에 편승해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러시아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의 하나로 푸틴 정부는 '극동개발부'라는 신설 부서까지 만들며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계획해 왔다. 물론 러시아에 있어 동방정책은 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2009년경부터 시작된 유로존의 경제 위기로 유럽의 대러시아 투자가 줄고 유럽과 교역이 줄기 시작했다. 따라서 러시아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를 극동 러시아 지역의 코요인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브콜'인 동방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의 아시아를 향한 관심은 푸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역사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아시아에 관심을 두게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유럽 때문이었다.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통치하면서 유럽을 러시아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로 설정하고 러시아 사회를 서구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교육제도에서부터 복장, 음식에 이르기까지 유럽식 문화가 러시아로 물밀 듯 쏟아져 들어왔는데 '위로부터' 강압적인 서구화 개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러시아 지식인들이 있었다. 미하일 셰르바토프는 1787년 그의 저술에서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이 러시아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1840년대에 '슬라브주의자'로 불렸던 지식인들은 표트르 대제 이후부터 러시아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러시아 농민공동체와 정교 신앙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던 차에 1855년 러시아와 유럽연합군 간에 벌어진 '크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면서 몇몇 슬라브주의 지식인들은 그동안의 유럽에 대한 짝사랑을 그만두고 아시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역사학자 미하일 포고딘은 "더 나은 상황을 기억하며 유럽을 내버려두고, 우리는 모든 관심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 우리가 원한다면 아시아의 절반, 즉 중국, 일본, 티베트, 부하라, 페르시아는 우리 것이다... 러시아에게 이 얼마나 장엄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가!"라고 외쳤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1881년 그의 에세이에서 포고딘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글에서 "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아메리카 발견 당시 유럽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문명교화 사명은 우리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는 러시아의 장래

를 위한 중요한 출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9세기 중반 유럽과의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의 일부 지식인들은 아시아를 향한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 무대로 봤다.

실제로 러시아는 19세기 말 서구보다 뒤늦게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서구 열강처럼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로 다가왔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이 이미 유럽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된 상황에서 생산품을 팔기 위한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으로 눈을 돌렸고 한반도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궁극에는 당시 아시아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하던 일본과 러일전쟁(1904-5)을 통해 충돌하게 됐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1917년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아로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중단됐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국의 차원에서 러시아 지도자 또는 엘리트들이 아시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 1986년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최동단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임을 표방하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선언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푸틴 정부와 마찬가지로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러시아의 국익수호와 생존전략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외교, 경제적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엘리트 정부 말기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두긴과 같은 지식인도 있었다.

결국, 최근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의 뿌리는 19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역사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아시아를 향한 관심은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이라는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그 외에도 유럽(서구)과의 관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광대한 영토를 지닌 유라시아 국가,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통시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눈처럼 아름다웠던 스톡홀름에서의 나날들

거리 곳곳이 쑥 넣은 백설기 같았던 겨울의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날 반긴 것은 창가에 장식된 노란 불빛이었다.

스톡홀름은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보다 작은 도시지만 배울 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마트에 갖춰진 어린이용 카트, 식당에 있는 이유식용 전자레인지, 휠체어를 배려하도록 설계된 버스 구조 등 도시 구성구석이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다.

처음 스웨덴에 도착한 후 어려운 수업 과정 때문에 학교가 끝나도 한동안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했다. 이런 지루한 생활을 바꿔준 것은 'Language Cafe'였다. 'Language Cafe'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있는 곳인데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교내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곳에서 한국어 배우고자 하는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튜터 역할을 했다. 한국어와 스웨덴어를 교환하며 서로에게 어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다.

어학 공부를 넘어 의미 있는 카페 활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걸 당부하고 싶다. 타지에서 외국인들 사귀기 때 수줍음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웨덴 친구들은 대체로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가까운 사이가 되기 힘들다.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교류하다 보니 친구들 집에 초대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언어 교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 다른 문화를 공유하기가 더 쉬웠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 해도 수용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게다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만큼 이해의 폭은 더 넓어졌다. 책상을 벗어나 새로운 언어,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 그리고 다른 인종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매력이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교환학생이 되려면 우선 학과 내 교환학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선발시험은 대체적으로 학과 수업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성실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스웨덴어 수준은 학과 내 수업 수준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선발시험에 통과한 후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스웨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스톡홀름 대학에선 시험을 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 기간 전에 시험 등록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스웨덴에 먼저 다녀온 선배의 조언이나 학과 내의 유학 설명회를 참고한다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1학기에 다녀오길 추천한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시원한 여름으로 이어지는 스웨덴을 보면 귀국하기 싫어질 테니 말이다.

정수민(서양어·스칸어 12) 양 스웨덴 교환학생 파견활동 수기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에 재입학하면 전문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해줍니다.

★ 학군사관(ROTC) 57·58기 모집안내

2016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7기(남·여 모두가능): 4년제 대학 2학년재학생(5년제 학과는 3년 재학생)
 - 학군 제58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2016년 3월1일~3월 31일
 -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 접수]란 이용
 - 일정: 1차 필기고사: 4월 2일(토) / 발표: 4월 22일(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4월 25일(월)~5월 20일(금) / 발표: 6월10일(금)
 - 신원조회: 6월13일(월)~8월 12일(금)
 - 최종합격: 8월18일(목)
 - 문의처: 학군교 (043)830-6031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외부인과 갈등 초래한

지난 2일부터 서울캠퍼스 학생식당(이하 학식)에서 학번 인증 제도가 본격화됐다. 이는 지난 1월 15일 4차 회의를 거쳐 총괄지원팀 후생 파트와 총학생회가 협상한 결과다. 이 날 회의에서 학식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재학생만 학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번을 인증해야만

◆학식 개방도 외부와 상생해야 하는 대학의 책임 중 하나 아닌가요?

우리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는 김 양은 우리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평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는 우리학교 학식을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개강 후 학번이 없으면 식권을 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김 양은 '외대 학식이니 외대생만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듯한 모습에 섭섭함을 느꼈다. 한 언론사도 "상생을 추구해왔던 외대가 학식 이용을 제한했다"며 "이는 학생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대학의 책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상생을 주장하는 외부인들은 "대학은 나라의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없고 나라의 국민들의 동력에 의해 움직인다"며 "대학 역시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학안 '학교 식당'이 우리학교 학생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갖는 의미를 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외부인 통제 방법으로 학번 인증 시스템만이 정답일까?

학번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도 재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외부인에게 추가요금을 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학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식권을 구매할 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또 우리학교 학생의 학번을 빌려 타 학생이 학식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외부인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박재욱 군은 "사칭은 안되지만 학번은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통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자가 난다면 외부인에게 돈을 더 받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바로잡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7+1 파견학생제도
② 담당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국제교류팀 주관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 제외 나머지 언어 - 전공 학과 주관	영어권 - 국제교류팀 영어권 제외 나머지 국가-각 학과에서 주관
④ 학점인정	최대 18학점(최소 6학점 이수 필수)	최대 18학점(최소 6학점 이수 필수)
⑥ 등록금	우리 학교에 납부	외국 대학에 납부

◆교환학생과 7+1

교환학생이란 우리학교와 상호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 및 학점을 교환하는 것이다.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우리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7+1은 재학 기간 8학기 중 1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크게 학과 선발, 학교 선발, 우수 입학자의 3가지 선발 전형이 있다.

◆7+1 우수 입학학생과 우수 입학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

우수 입학학생이란 일정 성적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11학년 이후 학생은 1학년 평점 평균 3.7 이상이면 우수 입학학생 자격으로 학과에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사항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담당 부서와 해당 학과

선발	국제교류팀	학과	비고
교환학생	영어권/중국어권/일본	영어권/중국어권/일본제외 언어권	학과 선발은 해당 언어 학과에서 진행
7+1	영어권	영어권 제외 언어권	우수 입학제도 학과 신청 절차 필요과 신청 절차 필요

◆국제교류팀에서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 교환학생과 영어권 7+1을 담당하는 이유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언어권으로 국제교류팀에서 우리학교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하며, 교환학생 선발 시 언어 능력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 제외 언어권 교환학생은 학과에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7+1 프로그램은 영어권에 한해 국제교류팀에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방문학생 자격으로 수학할 수 있는 대학 및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어권의 경우는 학과에서 전공 인정 가능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교환학생과 7+1의 경쟁률

교환학생 선발 경쟁률은 학과와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신규 선발 대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국보고서에 좋은 후기들이 쌓이면 그에 비례해 지원 인원이 증가할 수 있다.

7+1 역시 학과마다, 매 학기마다 경쟁률이 달라진다. 언어 전공 학과의 경쟁률이 비교적 비언어전공 학과보다 높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학과 상황에 따라 실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기자 명단에 넣어줄 수도 있다.

◆교환학생과 7+1의 한계

교환학생과 7+1 프로그램으로 1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전공학점이 인정된다. 전공 인정 학점 기준이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를 확인해봐야 한다.

국외교류 프로그램으로 18학점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 원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므로 18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모두 패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대부분의 국외교류 프로그램은 학점이 패스/페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일부 학과에서는 성적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 리스트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11학년 이후 학생 중 1학년 평점 평균 3.7이 넘는 학생들은 7+1(우수입학) 자격으로 학과에 신청할 수 있다.

학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번역대에서는 국제화 연수 지원비를 통해 여학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15학번부터, 1인당 70만 원) → 해외연수



고객과 함께한 60년, 그 열정으로 이제 고려해운이 100년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 제21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 제14회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유통부문 대상 미래부 장관상
- 2014년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경영대상



본사 고객센터팀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팀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

www.ekmtc.com

우리학교 학번 인증 시스템

식권을 뺏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학교 학식은 가격에 비해 양질의 음식들이 다양하게 제공돼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치렀다. 이런 인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학교 학식을 찾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외부인 제한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외부인 출입 금지, 지역 상권에도 도움

최근 식품 의약안전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외부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영리추구에 의한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 유권해석은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푸짐한 반찬에 위생적으로 깨끗한데다 저렴하기까지 한 구

내식당은 많은 외부인들에게 사랑받는다. 때문에 주변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무너지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조현진(서양어 · 스칸어 15) 양은 “뉴스에서 구청 주민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식당 이용을 제한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학식에 외부인을 제한한 것도 그런 것과 비슷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타 학생들의 유입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다. 외부인 유입으로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는 공간 차지다.

우리학교는 학생 수 대비 면적이 좁다. 학식도 마찬가지다. 주변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우리학교 학식을 이용하면 우리학교 학생들이 그만큼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희연(서양어 · 스칸어 14) 양은 “학교 보안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먹을 자리가 없다면 학번 인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간 매년 1억 원씩 적자

총괄지원팀 후생 파트 관계자는 “외부인들이 우리학교 학식을 이용하면 매출이 늘어이익이 더 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 인상을 하고도 외부인 제한 때문에 매출이 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3, 4월의 매출을 그 전과 비교해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식당은 10년간 매년 1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또한 학식은 외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해 운영한다. 때문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학생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소녀상, 옆자리는 비어있습니다



“죽을래야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아베가 깨끗이 청산하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합의(이하 12·28 합의)’가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중략)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함”,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10억 엔 거출¹⁾”이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이번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 거출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12·28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주체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대책협의회 심터를 찾아온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향해 “당신은 어느 나라 소속이냐,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냐, 이런 협상을 한다고 미리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일본 정부의 태도 또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부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기사단 위무상이 대신 발표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10억 엔 또한 피해자 할머니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말뿐인 사과와 모호한 재단 출연금이 아니라,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합의문 발표에서 ‘사죄’와 ‘반성’은 입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정부는 현재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논란을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있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철폐위)는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철폐위는 “불가역적으



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접근은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 과정에서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 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녀상의 옆자리는 비어있다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있기 때문이다.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시위는 3월 16일로 1222차를 맞는다. 1000회 수요시위였던 2011년 12월 14일에 소녀상이 설치됐다. 소녀상은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소녀상의 머리는 거칠게 뜯겨 있다. 이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과 소중함을 뺏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팍 쥘 주먹은 해방 70년이 넘도록 사죄가 없던 일본에 대한 분노이며 진정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다. 맨발은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을 벗겼던 것을 뜻한다. 땅에서 떨어진 발뭉꿈치는 환향(고향으로 돌아옴)했지만 오히려 따가운 시선과 발발일 자리 없어 불편함을 말한다. 소녀상의 옆자리는 비어있다. 누구나 옆자리에 앉아 소녀를 위로 해주고 안아주라는 뜻이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다. 이번 해 김경순 할머니 등 2명이 별세해 현재 생존자는 44명이다. 할머니들은 평균 연령 89.4세다.

◆소녀상, 당신의 온기가 필요하다

12·28 합의가 발표되고 이를 후인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불박이 농성을 지원한 대학생들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함께 했다. 대학생들은 소녀상 옆에서 먹고, 자며 24시간 불박이 농성을 하고 있다. 몰아치는 한파에도 그들은 소녀상과 함께 떨었다. 김섬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피해자 할머니들 마음보다 더 추울까”라며 추위를 견뎠다.

지난 2월 29일부터 불박이 농성중인 한연지(상신여대 12) 양은 “12·28 합의가 폐기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이대로 농성을 그만두면 이 일이 묻히는게 아닐까”하는 마음에 2월 29일부터 3월 말까지 불박이 농성을 지원했다. 한 양은 “대학생,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녀상 결에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가족, 중·고등학생, 지나가던 시민들로 붐볐다. 중학교 3학년 정기호, 임강우 군은 영화 ‘귀향’을 보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생겨 소녀상을 찾아왔다. 정기호 군은 “소녀상을 지키는 데 작은 힘이 될까 해서 왔다”며 농성을 함께 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함께등대’는 지난 1월 4일 12·28합의를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함께등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사과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 없이 10억 엔에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덮었다”며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사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날 우리학교 일본어대학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읽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한연지 양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대협 누리집에 접속하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의 10억 엔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모아 정의 기억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도 평화나비네트워크 지부(이하 우리학교 평화나비)가 있다. 강지은 지부장(공과 · 산경 13)은 “세미나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를 알게됐다”며 활동 동기를 말했다. 우리학교 평화나비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을 학교 안에서 진행 중이다. 정의기억재단 설립에 기부되는 팔찌 판매와 소녀상 뱃지달기 운동도 함께 한다. 강지은 지부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실천하는 1억인 서명운동, 팔찌 판매와 같은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싸고 안전한 대학생 보금자리 어디 없나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원룸을 알아보거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자취한다. 우리 학교 주변 원룸 시세는 보통 보증금 500~1000, 월세 40~50만원이 평균적이다. 여기에 공과금도 따로 내야 한다. 월세 30만원의 방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

◆“월세 30에 방 구하는데...”

가자가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 방을 알아봤다. 공인중개사는 “월세 30에 방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런 방은 구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인중개사는 “반지하도 괜찮냐”고 물었다. “반지하가 아닌 그냥 원룸을 원한다”고 말하자 마침 보증금 300, 월세 30만원에 나온 방이 있다며 데려갔다.

학교에서부터 10분 정도 걸어가자 상가건물 4층에 원룸이 있었다. 1층은 상가 건물로, 2층에서 4층까지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타고 올라가자 철문이 나왔다. 세탁기, 침대, 책상, 부엌이 있는 좁은 원룸이었다.

방을 다 둘러보고 다시 부동산에 돌아갔다. 공인중개사가 원룸 주인에게 전화해 “여학생이 방금 방을 둘러봤는데 마음에 들어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갑자기 원룸 주인이 월세 30은 절대 안된다며 40만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왜 갑자기 말이 바뀐 것이냐며 따지자 “그러면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2년을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는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기약없는 말을 남기며 부동산을 나왔다.

계약할 때 진행한 서류상 사인으로 2년 장기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기에는 무리다. 서울캠퍼스 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월세 값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 마음이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2년 계약을 할 경우 2년 안에 나오게 될 일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자신을 대신할 세입자를 구해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싸게 구했다고 안심은 금물!

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했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불법 용도변경된 원룸에 학생들이 입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에서 자취하고 있는 김 양은 최근 이상함을 느꼈다. 급하게 구한 원룸의 월세가 30만원정도로 싼 편이었지만 관리비로 매달 13만원씩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후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학원 근처에 방을 구하느라 급하게 계약했다. 다른 방들에 비해 월세가 싼 편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약하고 나서 받은 등기서류에 ‘학원’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계약 전 학원 건물임을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불법용도변경 건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것이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 시설로 슈퍼마켓을 예로 들 수 있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로 취미와 편의와 관련된다.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돼 사용되는 원룸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신림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리모델링 소음으로 고통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구청 직원의 현장조사 결과 1~3층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었다.

이처럼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의 원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과금을 폭탄으로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주거용 요금에 비해 매우 비싸다. 특히 수도요금은 가정용의 2배다. 서울시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단가는 △0~30㎡이하 1㎡당 360원 △30㎡ 초과 ~ 50㎡ 이하 1㎡당 550원 △50㎡ 초과 1㎡당 790원이다. 그런데 영업장에 부과되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0~50㎡이하 1㎡당 800원 △50㎡ 초과 ~ 300㎡ 이하 1㎡당 950원 △300㎡초과 1㎡당 1260원이다.

서울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이 지어지면 6개월 후에 건물 검사를 한번 나가고 이상이 없으면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은 학생이 알아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물 검사가 끝난 후 용도변경을 해도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권력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집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등기부등본, 건물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전씨는 “대학생들이 원룸 입주 시에 상가건물에 원룸이 있을 경우 주의 해야 한다”며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인지 알지 못할 때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하고 싸게 살 수는 없나요?

서울시에서는 홈쉐어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을 소유한 65세 이상 노인들과 대학생들의 주거공유 프로그램이다. 홈쉐어링을 통해 노인은

적적함을 달래면서 임대수입을 보장받고 학생들은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청에서는 학생들이 입주할 방의 도배와 장판, 간단한 수선과 이사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임대료는 노인과 학생간 협의에 따라 시세의 50% 선에서 결정되는데 월 임대료는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방을 제공하는 노인 가구에게 1실당 50만원 이내의 주거 환경 개선비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는 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홈쉐어링 사업의 임대기간과 입주기준 등을 표준화해 공급을 더욱 늘리고 있다.

SH공사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희망 하우징을 실시한다. 이는 매입한 다가구주택이나 직접 건설한 원룸인 공릉·정릉 희망 하우징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 등이 신청 가능하다. 희망 하우징의 장점은 관악, 노원, 동대문, 마포, 강남 등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은 희망 하우징은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거의 임대가 가능하다.

내국토주거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을 대신해 LH공사에서 전세금을 내주는 제도다.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 LH공사에 알리면 심사를 거친다. L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그것을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 기타지역에는 4,500만원의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LH공사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자신이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고, 공급물량이 많으며, 최장 6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만 빼면 일반 전세와 다를 바 없는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다. 국토주거주택공사는 이번달 7일 공공 임대주택 9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번 해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5,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앞아서 보는 전시회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가 짖었다. 태극기가 휘날렸다.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1km 쯤 언덕을 올랐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에 있는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역사관 마당에는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있었다. 흉상의 옆에는 할머니들의 사진과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사연이 적혀있다. 문필기 할머니, 1925년 경상남도 진양에서 태어났다. 1943년 18살 되던 해에 공부시켜 준다는 동네 아저씨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다가 장춘 ‘위안소’로 끌려갔다. TV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1992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왔다. 늘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가 매력적이었던 할머니는 2008년 3월 5일 사망했다. 역사관 입구에는 위안부 최초 증언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쓰여있다. ‘우리가 강요에 못이겨 했던 그일을 역사에 남겨 두어야 한다’.

역사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1전시공간 ‘증언의 장’을 만난다. 증언의 장에서는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영상도 상영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이며, 어떤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됐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제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돼 강제로 반복해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제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의 여성들까지도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했다. 그 수는 5만에



서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계단을 걸어 지하로 내려가면 두 번째 전시관 ‘체험의 장’이 있다. 이곳에는 실물 위안소를 재현해 놓았다.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를 이용하고 지냈던 군포, 그들이 사용한 샷(문뚝)도 전시되었다. 당시 사진과 그림은 위안부 동원과정과 생활을 보여준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면 제3전시공간 ‘기록의 장’을 만난다. 이곳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각종 문서와 사진 및 영상자료를 보여준다. 일제의 만행도 확인할 수 있다. 8월 15일 광복의 날, 위안부들은 버림받았다. 일본군은 위

안부들을 한곳에 모아 죽였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집단으로 귀국했다. 혹은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가며 고향으로 향했다.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바로 옆에서는 3월 16일로 1222차를 맞는 수요시위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분향소가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실내 마지막 전시공간 ‘고발의 장’이다. 올라가는 길에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당시 할머니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그들은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 ‘편한 곳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맛있는 것 먹으러가자’와 같은 말에 속아 위안소로 끌려갔다. 다른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납치하거나 위안소 업자들의 유괴,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됐다. 그림을 보면 그들의 이름과 두려움이 절절히 느껴진다.

려움이 절절히 느껴진다.

역사관 마당에는 고 강덕경 할머니 1주기 추모비가 있다. 추모비 뒷면에는 나눔의 집 식구들의 추모글이 쓰여있다. ‘몇몇해 같이 살았는데 네가 소원한 것 하나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8명이다. 그 가운데 생존자는 44명이다. 이제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9.4세다.

역사관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바람은 더 차갑고 거칠었다. 태극기는 여전히 휘날렸다. 개도 짖었다.



과학을 만나다



기자는 엑스트라다

TV 드라마를 보다 우연히 깨달은 것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 기자는 항상 '엑스트라'라는 것이다. 극의 장르가 어떤 것이든 기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 뒤늦게 나타나 등장인물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주인공은 수많은 기자들을 무시하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심지어 기자가 주인공인 영화에서도 기자는 단독 주인공이 아니다.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대기업의 비리 같은 사건이 없다면 기자는 홀로 흥미로운 줄거리를 이어 나갈 수 없다. 그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인물일 수 없다. 실제로 드라마, 영화 속 기자들처럼 무시당하는 것도 다반사다. 기자는 제3자이며 당사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기자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엑스트라라고 생각한다. 엑스트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이 없다면 국이 흘러갈 수 없는 것처럼, 기자가 없는 세상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눈과 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눈과 귀가 없다면 삶의 질은 추락할 것이다. 눈과 귀는 사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엑스트라인 것이다. 기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보고 들으며 대중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만들기에, 눈과 귀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엑스트라다.

인타까운 것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눈과 귀를 스스로 닫으려 한다는 것이다. 학보는 독자들에게 더 많은 학교 내외의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보에 큰 관심이 없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학보에 대해 물어봐도 학보 자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 알고 있다 해도 학교 소식에 관심이 없어 잘 안 읽는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단지 학보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 학생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 갈수록 취업이 어렵기 때문일까? 학교는 점점 학점과 졸업을 위한 직업 훈련소가 돼가는 분위기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당장 내가 속해 있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면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사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있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엑스트라 한 명이 극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기자인 내가 학교와 학생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바뀌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독자들의 눈과 귀로서 학생들이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가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엑스트라가 되고 싶다.



김명환 기자

알파고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패한 것은 이번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있었던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딥블루(Deep Blue)의 체스 대결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패배했다. 2011년 미국의 인기 퀴즈쇼에서 승리한 켄 제닝스(Ken Jennings), 브래드 루터(Brad Luther)와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의 퀴즈 대결 또한 왓슨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의 불가침 영역이었다. 체스는 경우의 수가 10의 120제곱 개로 비교적 많지 않아 모든 수를 계산하기 쉽고, 퀴즈의 경우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유리했다. 바둑은 첫 수의 경우의 수만 12만 9,960가지가 넘고 바둑판 위 361개의 점 모두가 채워지는 경우의 수는 10의 170제곱 개다. 또한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순발력에 승패가 갈린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지금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체스 프로그램만 해도 1997년의 딥블루를 쉽게 이길 정도로 발달했다. 사람들이 알파고의 승리로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 인공지능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그들의 반란은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처럼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

라. 인간의 직업을 뺏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약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만, 약 710만개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전향상담원 같이 단순한 작업이나 건강관리와 금융업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은 몇 년 내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 군에 속하는 직업으로 뽑혔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생물체의 진화 속도는 현저히 느리지만 인공지능은 그 속도가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름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정도까지 발전한다면 그 이후는 이미 인간의 손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호킹은 일찍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둑에서 이긴 알파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지도,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알파고가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판도라의 상자를 닫으라는 것' 아닐까?

김영환 기자 y2youngx@hufs.ac.kr

그림 읽어주는 기자



모네와 이세돌

지난 1주일 간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 빠졌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국이 그것이었다. 대국 시작 전 여론은 이세돌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대국이 시작되자, 전 세계는 놀랐다. 예상과 다르게 이세돌은 알파고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15일, 결국 이세돌은 마지막 대국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다. 세기의 대결은 1:4, 인간의 패배로 끝났다. 인간 지적 활동의 최고봉으로 여겨졌던 바둑에서조차 기계가 이기다니, 그럼 인간의 바둑은 끝났을까? 19세기 화가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다.

19세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시대였다. 산업 혁명을 시작으로 기차와 자동차, 항공기가 발명됐다. 이어서 전기가 발명됐고 전구, 가로등 그리고 사진기가 발명됐다. 사진기의 발명은 화가들에게 충격적이었다. 19세기 이전까지 서양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의 재현 또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었다. 화가들은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평면에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진기의 발명은 화가들을 위협했다. 사진기는 어느 화가보다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했다. 게다가 당시 화가들은 야외에서



▲〈인상, 해돋이〉, 클로드 모네, 캔버스에 유채, 48x63cm, 마르모탕 미술관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튜브 물감이 발명되지 않아 화가가 밖에서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이 끝났을까?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은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미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그들은 대상이 빛에 의해 형태와 색채가 달라지는 순간을 그렸다. 바람이 부는 것을 그렸고, 엇갈린 사랑을 표현했다. 남다른 시선으로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림을 보자. 모네는 새벽녘 해가 뜨는 모습을 그렸다. 느슨한 붓질로 그린 하늘, 공장, 배, 바다. 명확하게 그려진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이 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모네는 사진기보다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이 사진기의 발명으로 사라지지 않았듯이, 이세돌을 비롯한 인류는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외대학보, 움츠린 날개를 펴자

지난호는 방학 동안의 오랜 공백 탓일까. 다소 정보전달 기능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1면과 3면에 걸쳐 살펴본 결과 심도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면에 학생상담 이용 방침 변경' 기사는 졸업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논쟁에 대해 다루지 않고 단순한 사실 보도에 그친 점이 아쉬웠다. 또한 3면의 '직무교육 실시'에서 '쿠션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적었더라면 기사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을 것이다.

시의성 문제, 지난 2년간 늘 문제가 되었던 현안이다. 지난 시안에 대한 보도가 대신 '개강호' 인 만큼 신입생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다가오는 학교 행사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다고 본다. 기획인 6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7+1편견학생제도'도 의도는 좋았으나 방학 전에 다루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2면의 '그리스정교' 기사도 시의적절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신문 편집에 있어 크고 작은 실수가 안타까웠다. 8면의 표제에서 '네 꿈 대신 비표준어인 '니 꿈'으로 표기

김재민(교육 · 한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4)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했으며, 9면에서는 '학술인터뷰'라고 했지만 기사 내용은 인터뷰 형식이 아니었다. 또한 6면에서는 표의 차트 제목이 없어 기사를 읽는데 불편을 겪었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문의 표·부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기사에 대한 흥미를 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표·부제는 신문 전체의 분위기와 기사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독자를 고려한 주제 선정, 10면의 '과학을 만나다', '그림 읽어주는 기자'는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한다. 다만 앞으로 내용에 있어 긴밀성을 견지하고 적절한 소재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6면과 8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도 좋은 시도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난 992호에 보여주었던 좋은 기획 선정의 흐름을 이어갔으면 한다. 외대학보도 봄의 활기찬 기운 만큼이나 좀 더 적극적인 취재 열기를 기사에 담아 주길 바란다.

세상과 학생의 연결고리가 되는 외대학보가 되기를

지난 992호는 다사다난했던 2015학년도였던 만큼 다양한 기사를 실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만큼 다소 산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새 학기의 분위기와는 대조되게 전반적인 기사 분위기가 우울해 아쉬움이 남는다.

심층 면을 통해 2015년 교내의 '뜨거운 감자'였던 총학생회 각 사안에 대한 보도가 명확했고 대담형식의 편집을 통해 효율적인 보도를 해줬다는 호평이 있었다. 기획 면에서 '수업시간대비 낮은 학점'이라는 교내문제에 대한 기획은 참신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보도인데다 학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느낌이 짙었다는 비평이 있었다. 과도한 수업시간과 이에 비해 적은 학점은 목적이 옳은 것이라도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면에선 최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선호 현상'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설문을 통한 자료제시와 평

이정현(동유럽 · 루마니아어 1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가는 좋았으나 현상 확인 수준에 그친 기사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공무원 선호현상'은 안정성을 지고의 가치로 삼는 현 세대의 수동적, 순응적 태도를 방증한다.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보사 자체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은 자율적인 만큼 학기가 단절됐다고 학생들의 독립성이 뚜렷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더욱이 전공공부, 대외활동까지 병행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매번 교내의 주요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고립된 학생들에게 사회와 교내의 주요사안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학보사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연결'은 단순히 '현상을 아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더욱 진정한 의미의 연결을 이뤄주는 외대학보가 되길 기대한다.

모든 이직자의 머리 위에 헤드헌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한 대기업은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 3,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말은 '희망퇴직'이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구조조정이었다. 이 구조조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겨우 1,2년 근무하고 퇴직을 권고 받은 신입 사원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 대기업이 내걸었던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했다.

요즘은 정말로 '사람이 미래'인 시대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직원 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외부적으로는 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인사관리에 실패한 기업은 매출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추락도 각오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사를 관리할까? 또, 어떻게 필요한 인재를 찾을까? 이 질문들의 모든 답에는 '헤드헌터'가 있다.

고강식 (주)탐경영컨설팅 대표는 대한민국 1세대 헤드헌터로 불리는 기업인이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1987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헤드헌터의 불모지였다. 고강식 대표는 우리나라에 헤드헌터 시장을 개척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곳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강식(영어 73)
(주)탐경영컨설팅 대표이사

◆학생들에게 '서치펌'이나 '헤드헌터'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직업인지 설명해 달라.

기업들의 전통적인 인사 채용 방법은 공채 광고를 통해 지원서와 면접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방식은 신입 사원이나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다. 그러나 관련 분야에 특별한 경력이 있는 인재나 고위 간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기업은 좀 더 능동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헤드헌터를 이용한다. 본래 '헤드헌터'나 '헤드헌팅'이라는 단어는 원시 부족이 상대 부족 구성원의 머리를 잘라 온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정식 명칭은 '서치펌(Search Firm)'이나 '서치 컨설턴트(Search Consultant)'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인원은 그 기업 구성원의 3% 미만이다.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키 맨(Key Man)은 매우 극소수인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런 중요인물들을 필요한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특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려 할 경우 한국인 최고 경영자나 중역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치펌에 많은 의뢰를 한다. 외국인의 경우 경영진을 선발할 때 서치펌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보편화 돼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서치펌 시장의 활성화로 과장이나 부장급, 대리급 인사까지도 서치 컨설턴트를 이용해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식적인 의미의 서치펌은 새로운 경영자나 중역이 필요한 기업에 적절한 인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그렇다면 서치펌과 직업소개소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

서치펌과 직업소개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업소개소는 실직자나 이직을 원하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행정직 근무자나 사무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직을 원하는 실직자가 직업소개소에 직접 의뢰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과 직업을 소개받는 비용은 전액 구직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서치펌과 차이가 있다.

서치펌도 실직자나 이직을 원하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나 하위직이 아닌 사장이나 중역 같은 경영진, 소수 전

문 인력이 주요 대상이다. 의뢰 또한 개인이 아닌 기업 단에서 이뤄지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공개 광고나 모집이 아닌 서치펌 내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 동종, 유사 업계에서 후보자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전액 의뢰 기업에서 부담한다.

서치펌에서 기업이 의뢰한 인재를 찾는 절차는 직업소개소와 다르게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먼저 고객 면담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파악한 후 업계 조사 및 분석을 시작한다. 그 후 후보자의 명단을 추려 면담을 통해 1차적으로 인물과 자질을 심사한다. 최고 경영자나 고위 간부일수록 의뢰 기업과 후보자 모두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네 번, 다섯 번 이상의 면담과 심사는 필수다. 그렇게 다시 추려진 최종 후보자 명단을 의뢰 기업에 제시해 최종적으로 채용이 결정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치펌이 기업의 인재를 뺏어오는 일을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서치 컨설턴트는 의뢰 기업과 후보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어느 쪽에도 이직을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직은 최종적으로 개인적 의사 결정의 결과다. 필요한 인재를 적절한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길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 시장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다.

**필요한 인재를
적절한 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치펌은 어떤 변화와 역사를 겪어왔는가?

국내에서 서치펌은 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7년 우리나라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를 포함한 모든 서치펌들의 의뢰 기업은 99% 이상이 외국 기업이었다. 그 당시 국내 기업들은 공채로 직접 인재를 뽑고 카우는 방식의 '순혈통주의'를 고집했으며 먼저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IMF 사태로 국내 경제가 무너지면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했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들을 해고해야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시 인재들을 필요로 하게 됐고 그 때부터 국내 기업들도 서치펌을 이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고 세계 시장으로 더욱 진출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 인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계 인재를 찾기 위해 서치펌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외국계 인사를 의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변화하는 서치 컨설턴트 시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먼저 외향적이고 친화력 있는 성격의 소유주여야 한다. 서치 컨설턴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과 만나는 직업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않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서치 컨설턴팅은 결국 '남'의 기업 임원을 선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념과 끈기도 중요시 되는 자질 중 하나다. 의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가는 많은 기간이 걸린다. 거래처나 후보자의 거절에도 강하고 끈기 있게 설득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구조와 인사관리 체계는 복잡하고 수시로 변화한다.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인재가 어디에 있는 알기 위해선 업계소식이나 기업정보, 노무관리 등 경영학 지식은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인사 담당 업무 경력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후보자의 능력을 파악하고 성격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어야 서치 컨설턴트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서치 컨설턴트로서 바라본 현재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어떤가?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경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의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스펙, 나이를 중시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도 연령이 지나치게 낮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업에서 배경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학벌이 좋지 않거나 스펙이 좋지 않아도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면 누구든지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문화를 가진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현상이다. 애플(Apple)이나 델(DELL)과 같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창업자들이 연령이 높고 학벌이나 스펙이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들처럼 외국도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세계적인 기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국내 대기업에 취직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현재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한국의 인재를 원하는 외국 기업도 많이 존재한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우리학교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취업에 대한 걱정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외대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